

www.eai.or.kr

EAI 워킹페이퍼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⑪

한중의 상호 인식 변화와 한일관계의 함의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동덕여자대학교)

한중의 상호 인식 변화와 한일관계의 함의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I. 서론

한중 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갈등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상호 인식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한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번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 관계인 만큼 부정 인식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수교 30년이 경과한 한중관계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고조, 세계경제 침체와 공급망 불안정,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북핵의 고도화 등 외생 변수의 영향으로 기존의 협력 방식은 약화되고 새로운 협력 동력이 미처 확보되지 못한 채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양국 간의 상호 부정 정서가 장기화, 구조화될 경우 한중관계는 관계 발전의 동기마저 약화되면서 만성적 갈등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관계는 2015년을 전후하여 역사상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되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한중 양국은 모두 반일 정서가 고조되고 있었고 대일본 관계도 경색되고 있었다. 중국은 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중 간 부정 정서가 한일간의 부정 정서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시다 정부는 중국을 최대의 안보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의 개선,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한중일 삼국관계에 새로운 기류가 전개되고 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우려와 경계도 점증하고 있다. 2015년 전후 한중 양국의 반일 정서가 한중관계 발전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듯이 한일 양국의 반중 정서 고

조가 한일 관계 발전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최근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을 다각도로 조망하여 그 특성과 한중관계에 갖는 함의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간 상호 인식과 관계의 변화가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떠한 영향과 함의가 있을지에 대해서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변화와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와 특징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30년 간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서 2021년 3,623억 5천만 달러(홍콩·마카오 포함)로 57배 증가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인적 교류는 1992년 수교 당시 연 13만 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말 1,037만 명으로 약 80배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양국 간에는 매주 1,023회 정도의 항공편이 운행되었다.

그런데 한중 간 협력과 교류가 수교 이후 빠르게 급증했지만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은 오히려 나빠져 왔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면서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한중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 특히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은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이성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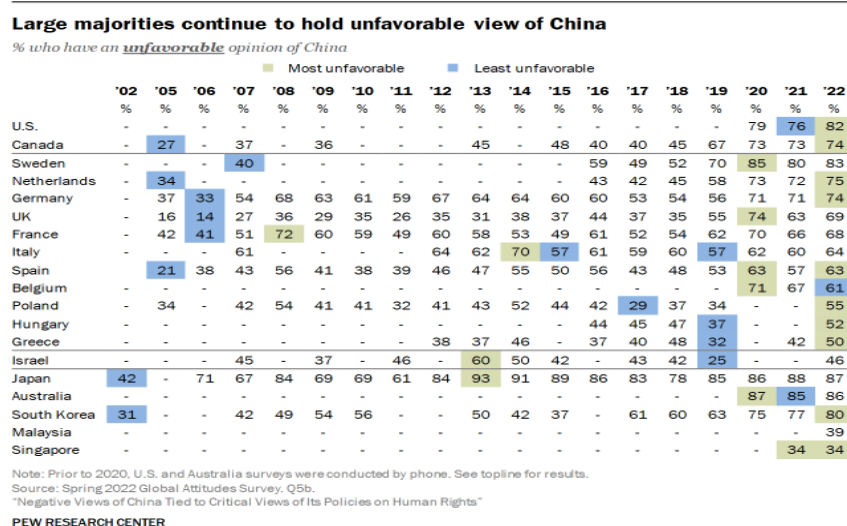
첫째,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6년 사드 갈등을 계기로 급격히 나빠졌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보복 조치는 한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명확하게 표출되게 한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과 정서는 특정 이슈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대중 인식이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반중 정서가 회복될 수 있는지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론을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 국민들의 대중 인식은 이미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그림 1], [그림 2] 참조). 전경련에서 실시한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호감도(1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 7.0점, 일본 3.7점, 중국 3.2점 등으로 응답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보다도 낮게 나왔고, 2021년의 3.5점보다도 0.3점 하락하였다. 2013년 이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가 사드 갈등으로 인해 다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상은 2013~2015년에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대중 인식이 좋아졌던 것이고, 보다 긴 맥락에서 추이를 보면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갈등이 발생하면서 반중 정서를 더 확대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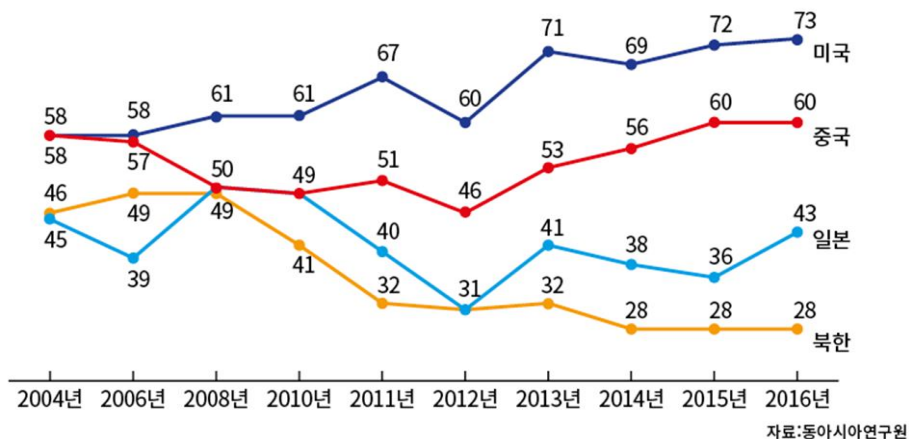
둘째,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래에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16%만이 중국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조사대상 13개국 중 가장 낮다(Silver et al. 2020). 한국은 조사 대상 13개국 평균인 34%의 두 배가 넘는 77%가 여전히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Silver et al. 2020).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에게 안보적, 경제적으로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9.2%에 달하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주지하듯이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25%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경제협력이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예상 밖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강하고 전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한국 등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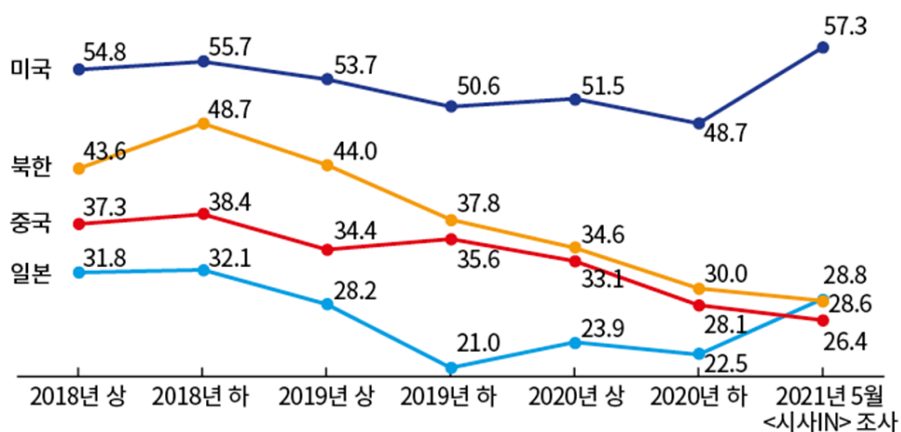


출처: Silver et al. 2020

[그림 2] 미·중·일·북에 대한 감정 온도 추이



(2018~2020년은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결과,
2021년 5월은 <시사IN> 조사. 0=매우 부정적 100=매우 긍정적)



출처: 이오성 2021a

셋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 특히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반(反) 중국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적에 가깝다고 응답한 젊은 층은 62.8%로 전체 평균 49.1%보다 12%p나 높게 나왔다. 다른 조사에서도 18~24세 응답자의 60.3%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했다. 25~29세(46.7%), 30~34세(49.1%), 35~39세(48.8%)보다 응답률이 더 높다(권민지 2021; 박예나 2022).

넷째, 한중관계는 정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 국민들의 부정 정서는 회복되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정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국민 인식도 상호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중 양국 정부는 사드 갈등을 넘어서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즉 양국은 방역 협력 체제 수립, 코로나19 통제, 신속 통로(입국 절차 간소화) 개통, 그리고 생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선도하는 등 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을 모색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4개 선도(四个率先)’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20)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미국(82%), 호주(86%), 캐나다(74%) 등과 유사하게 높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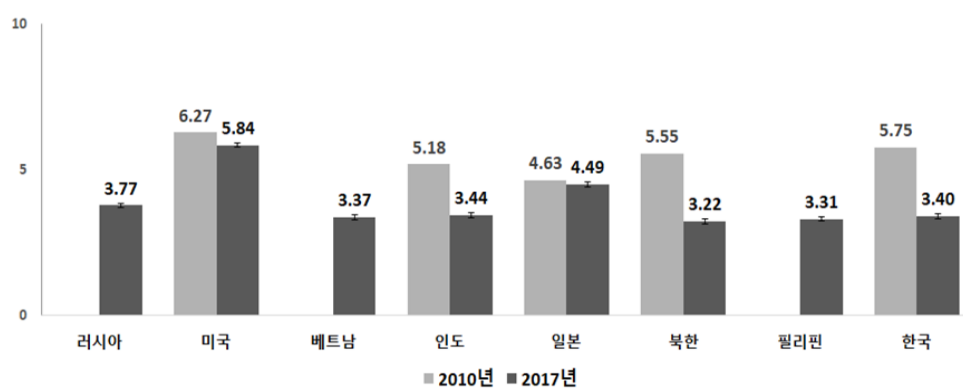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특징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최근의 객관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 자체에서 실시한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 데이터는 거의 없다. 그나마 한국에서 중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과 2017년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실시한 ‘2021 국가이미지’ 조사가 있다. 국가 이미지 조사는 주로 긍정, 부정 이미지와 호감도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어 부정 인식의 배경과 원인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이를 감안하여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첫째, 한중 양국은 인접국이면서 수교와 함께 최대 규모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 간의 인식은 상당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동되어 왔고 현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한중 양국은 지금까지 쟁점과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대립하면서 상호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으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한국 인식도 나빠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2010년과 2017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중국의 한국 인식은 나빠지는 추세에 있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3.40점(10점 만점)으로 조사 8개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전병곤 · 이동률 2017). 2010년 대비 2.35점 감소하여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하락 폭이 컸다([그림 3] 참조). 그리고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23개국 가운데 중국의 긍정 평가율은 68.6%로 일본(35%)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해외문화홍보원 2021). 중국에서도 한중 간의 주요 갈등 사안이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이 두 사안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중국의 안보가 도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림 3]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인식 변화



출처: 전병곤 · 이동률 2017

둘째, 한국의 중국 인식이 악화되는 과정에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가파른 부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전반적인 변화의 기류가 있었다. 수교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흥 개도국이었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했고 심지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주목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이 이른바 G2에 진입하고 미중 경쟁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대미 외교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 변화해 갔다.

요컨대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인해 중국에게 한국의 비중과 전략적 가치에 변화가 있었다. 최근 중국의 한 여론 조사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서 2020년에 발표한 중국 여론 조사에서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

한국은 북한(5.2%)보다 더 낮은 4.6%로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10위에 불과했다. 중국의 주변국 가운데서도 북한(9.0%)보다 낮은 7.2%로 조사 대상 9개국 가운데 8위였다(*Global Times* 2020).

셋째, 중국의 여론은 한국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이 있다. 한국 여론은 항상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심지어 여론이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저항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여론이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여론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국 일반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역대 최악으로 변화했고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적극적으로 전면에 표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 악화를 회피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반(反)미 정서가 표출되고 있지 않거나 통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나빠졌지만 이러한 부정 정서가 한국처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변 정세의 안정화와 우군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오히려 적극적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비록 수면 위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좋아졌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III. 한중 양국 인식 악화의 요인

1. 구조적 요인: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의 고조와 한중 국력 격차의 확대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적 인식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의 심화, 한중 간 국력 격차의 확대 등 일련의 구조적 변화가 양국의 상호 인식에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단기간에 비약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 이래 일련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즉 2000년 마늘 분쟁, 2004년 중국의 동북공

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국민 간의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중 간에는 2005년 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역사와 문화 종주권을 둘러싸고 민간 차원의 갈등이 이어졌고 양국 간 상호 부정 인식이 쌓여 갔다.

그런데 당시 수교 10년에 즈음한 양국은 여전히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발전의 강한 동기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했고, 한국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구조적 변화가 주는 신호에 주목하지 않았고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수면 아래에 덮여 누적되어 왔던 상호 부정 정서는 사드 갈등이라는 현안을 통해 마침내 봉인이 해제되면서 노출되었다. 즉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호 부정 인식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불거졌다. 그런데 갈등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치열하게 대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 가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관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봉합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부정 정서는 치유되지 않고 커져이 쌓여 왔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주된 이유로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17.8%)’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역사 민족 갈등(18.5%)’이라고 응답했다([그림 4] 참조).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초국경 위협(32.5%)이라는 현실적 문제 다음으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중국인들 역시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인은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4%에 달했다(이동률 외 2017). 중국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을 점차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 갔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중 경쟁과 대립의 파고가 양국 간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중국의 한국 인식이 악화된 직접적 배경은 사드 갈등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결국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저변에 있었다(전병곤 · 이동률 2017). 한국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이면에는 미국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중국인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과 2017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국인들은 한국이 이명박 보수 정부 시기인 2010년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더 미국과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0년 대

비 2017년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보는 응답은 7.9%p 증가하여 무려 71.5%에 이른 반면에 2010년 대비 중국과 가깝다는 응답은 10.1%p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전병곤 · 이동률 2017).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고조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상대국을 인식하는 기준의 하나로 미국과의 친소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인식하는 데 미국 변수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그러한 경향성은 더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사드 갈등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진 반면에 정작 사드 배치를 적극 요청한 미국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3) 참조). 이 역시 중국의 국력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경쟁 상대인 강대국과 주변국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국내 정치 요인: 정치 체제와 가치의 간극 확대

최근 한중 양국 간 체제와 가치 지향에서의 간극이 확대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촛불 시민 운동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민주, 자유, 정의, 공정 등 보편적 가치와 시민 의식이 고양되었다. 반면에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정치 체제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고 국민들의 가치와 이념의 차이를 새삼 재인식하고 있다.

중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매우 특이한 인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드 갈등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예상 밖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수준이 높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9.3%에 달하고 있다(전병곤 · 이동률 2017).

반면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을 수정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한국 내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2014년에 호감도가 59%였으나 2017년에 25%로, 그리고 2018년에는 19%로 떨어졌다(한국갤럽 2018).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시 주석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응답이 74%(2019), 83%(2020)로 나타났다(Silver et al. 2020). 특히 2020년 결과는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요컨대 양국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감대는 약화되고 상호 상대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체제

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으로 인해 나빠진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이 역사 및 전통문화의 종주권 이슈를 자극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로 비화하면서 양국 국민 간 부정 정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김치, 한복 등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새삼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현재 체제 안정과 집권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선진국 진입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촛불 시민운동’의 여파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이어서, 2022년에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졌고 국가민족주의도 고양되었다. 한국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가치와 이념 논쟁이 가열되었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각축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모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경향성도 커졌다. 한중 양국 모두 민감하고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부정 정서가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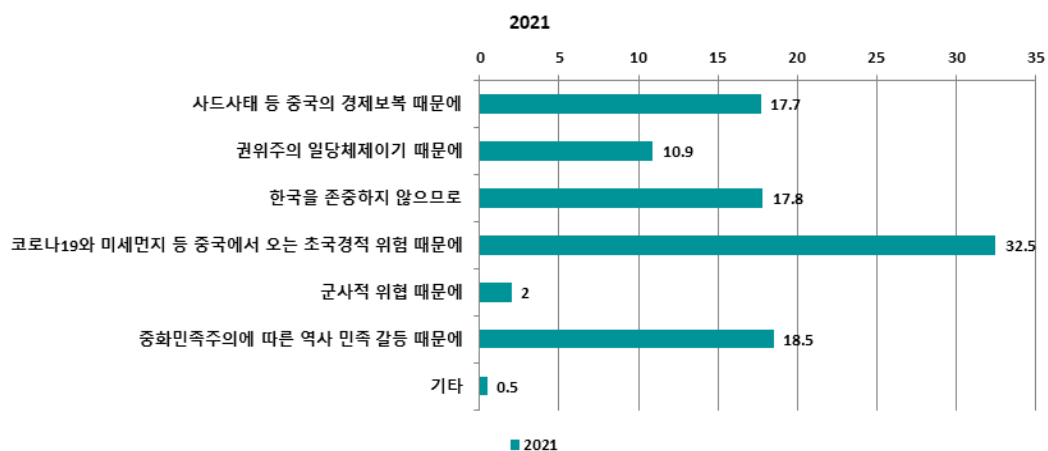
3. 인접국 리스크 요인: 환경, 기후, 감염병, 해양활동 등

한국에서는 대기 오염 등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등 중국 발 대기 오염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다. 해양 오염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 문제도 수시로 불거지면서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예상치 못한 중국 우한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접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예민해졌다. 코로나 발생 초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76만 명에 달했으며, 중국 내 한국인에 대한 강제 격리와 혐오 행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부정 인식이 확대되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중국에서 오는 초국경 위협’이라는 응답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그림 4) 참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주요국 간의 무역, 첨단기술 경쟁과 마찰을 45.56%로 1위로 응답한 반면에 2030 세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52.7%로 1위로 꼽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요컨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환경, 질병 등 현실적인 생활 안전에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사대주의, 공산주의, 경제 후진국 등 역사적 선입관이 일정 정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면 한국의 미래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중관계에서 미래 주요 현안과 쟁점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림 4]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 (2021)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2021b

IV.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와 영향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을 경과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외형적인 비약적 발전에 부합하는 관계의 내실화와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예상보다 신속하고 가파른 부상과 미중 경쟁의 고조라는 외부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지정학적 특수성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한중관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 한중 양국 간 국력의 비대칭성 확대와 더불어 체제와 가치의 괴리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인식의 간극은 커지고 오해와 왜곡의 공간은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 의존성, 중국 경사에 대한 저항 심리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미국 경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고조되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한중 국민들의 상호 부정 정서는 역사적, 구조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유승목 2022). 한국의 대중 인식이 대일 인식보다 나빠진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심지어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고 2015년에는 ‘최상의 관계’로까지 평가된 이면에는 중일 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중 간 역사와 위안부 문제로 인한 반일 정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중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분쟁 과정에서 일본을 압박,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이었다(이동률 2014). 예컨대 중국은 2012년 일본과의 수교 40주년 기념 행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은 반면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례적으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에는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한일관계 역시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지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미일 양국으로부터 ‘중국 경사’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한일관계는 더 경색되었다. 즉 당시 한중 양국 사이에 반일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양국관계를 발전시킨 동인은 상이했다.

당시 한일 간에는 중국 부상에 대한 위협 인식에서도 여전히 간극이 있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중국과 경제력이 역전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했고 한국 역시 중국 견제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일 양국으로부터 ‘중국 경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오히려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했다.

그런데 사드 갈등 이후 한국에서의 중국 위협 인식이 빠르게 증대하면서 한일 간 대중 위협 인식이 일정 정도 수렴해 가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북한 다음으로 중국을 군사적 위협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은 44.3%(2020)에서 61.8%(2021), 65%(2022)로 높아졌고 일본 역시 63.4%(2020)에서 70.5%(2021), 72.1%(2022)로 증가하였다(동아시아연구원 2021a; 동아시아연구원 2022).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은 여전히

히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한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응답이 2021년 80.4%에서 2022년에는 64.7%로 감소한 반면에 일본은 44.1%(2021)에서 47%(2022)로 증가하였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동아시아연구원 2022). 한일간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수렴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줄어들고 2015년 전후의 상황처럼 한일관계를 능가하는 한중 간의 연대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 인식이 증대하고 한중 간에 체제와 가치에 대한 간극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응답이 53.6%(2020), 64.2%(2021), 72.4%(2022)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각각 38.9%(2020), 36%(2021), 37.9%(2022)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한일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 안정을 한미일 협력의 1순위 목적으로 선택했지만 2순위로 한국은 중국 부상 견제(51.7%)를 선택한 반면에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44.6%)라고 응답했다(동아시아연구원 2021a; 동아시아연구원 2022). 아울러 중국 내 인권 탄압에 대해 한국은 61%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본은 35%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다수인 44.4%가 모르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동아시아연구원 2021a).

윤석열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은 중국 부상 견제를 2순위로 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 부상 견제 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된 이유라는 응답이 2022년의 경우 73.9%로 오히려 한국(56.4%)보다 더 높다. 일본은 한국보다 중국에 대한 위협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의 동맹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기시다 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도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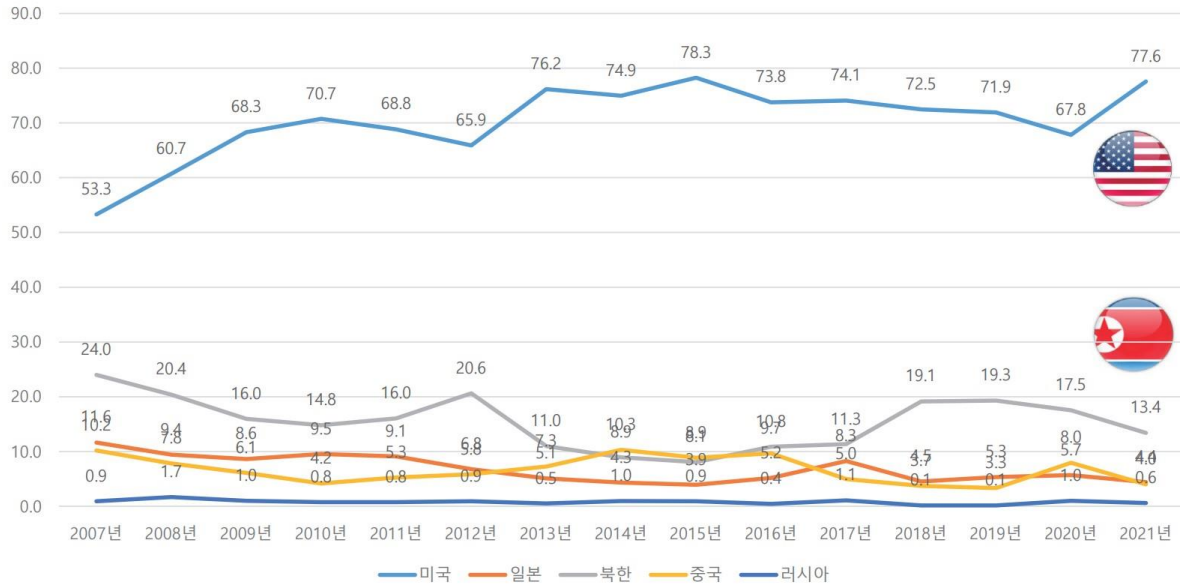
한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에 비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권 문제 제기와 한미일 안보 협력 참여에 적극적인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 관련 무역을 제한하는데 대해서도 일본(47.5%)에 비해 오히려 한국(62%)의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동아시아 연구원 2022). 일본은 높은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행보에는 의외로 한국에 비해 관심이 높지 않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안보 차원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실리 지향의 이중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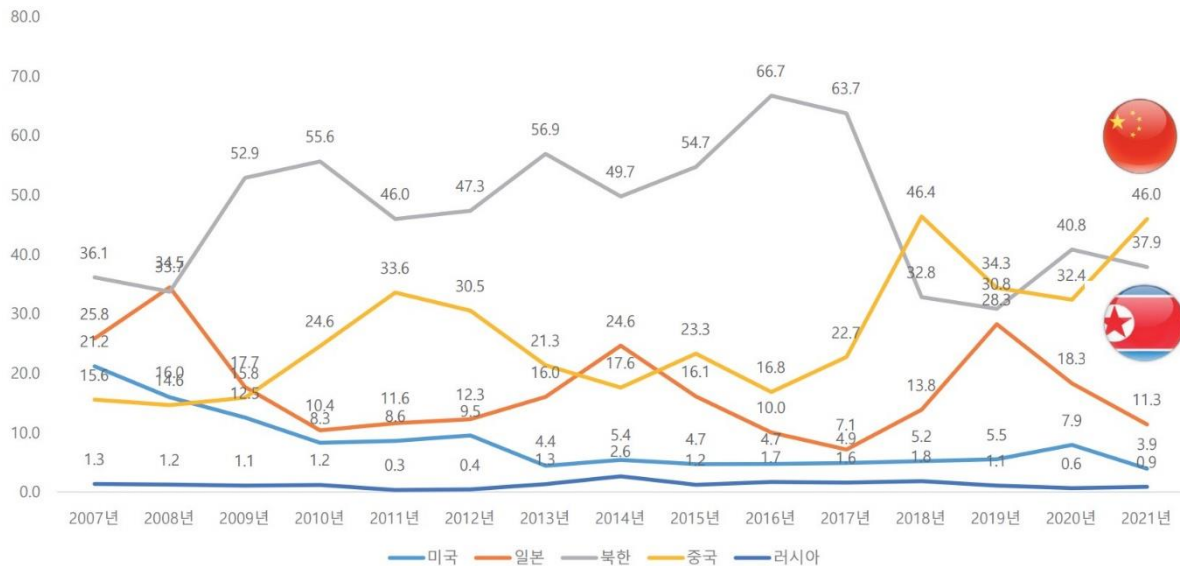
한중 간 부정 정서 고조와 한중관계의 정체 상황이 한일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달리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높은 반중 여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환경과 동력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처음으로 '프놈펜 성명'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공조와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그런데 비록 현재는 국민들의 반중 여론이 반일 여론을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관계에 내재된 역사 문제 등 뿌리 깊은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국 국민의 반일 여론이 언제든 다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일 간에 과거처럼 중국에 대한 인식의 괴리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안보 협력의 동인은 여전히 한일 간 상이하고,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위협감에서는 일본(11.3%)보다는 중국(46.0%)이 크게 높지만 친밀도는 일본(4.3%)과 중국(4.0%)이 유사하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160-165).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조사 대상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라는 응답에서 일본이 73.4%로 가장 높게 나왔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169-170). 그만큼 한국 국민들은 높은 반중 정서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5] 주변국 친밀감 정도



[그림 6] 주변국 위협감 정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참고문헌

- 권민지. 2021.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 MZ세대 모든 것.” 「국민일보」. 6월 2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855>
- 동아시아연구원. 2021a. “[EAI·言論NPO 공동기자회견]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 9월 28일. http://www.eai.or.kr/new/ko/etc/data_view.asp?intSeq=20884
- _____. 2021b.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인식조사 발표.” 11월 30일.
http://www.eai.or.kr/new/ko/etc/data_view.asp?intSeq=20944
- _____. 2022. “[EAI·言論NPO 공동기자회견]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 9월 1일.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398&board=kor_event
- 박예나. 2022. “청년 80% “中 부정적”...타오르는 반중 정서, 대선도 ‘흔들’[현장, 2022대선],” 「서울경제」. 2월 13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4JXGY6Y>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2021 통일인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55.
- 유승목. 2022. “MZ세대 “日보다 中이 더 싫어”...NO재팬과는 ‘다른 분노’.” 「머니투데이」. 2월 9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913325545167>
- 이동률 외. 2010. 『중국인의 한국 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03-34).
- 이동률. 2014. “한중관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 국립외교원. 2014. 『2013 중국정세보고』. 서울: 웃고문화사. 154-156.
- 이오성. 2021a.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시사IN」. 6월 17일.
- _____. 2021b. “중국에 대한 반감, 그 반대편에 친미가 있다.” 「시사IN」. 11월 29일.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국민이 바라는 신정부 경제외교안보 정책 조사.” 4월 4일.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379
- 전병곤 · 이동률. 2017.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 외교부.
- 정용환. 2018. “북한·필리핀·베트남과 큰 차이 없는 한국.” 「중앙일보」. 2월 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40180>

한국갤럽. 2018. “데일리 오피니언 제298호(2018년 3월 2주) - 대북 인식, 주변국 정상 호감도.” 3월 16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11>

해외문화홍보원. 2021.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https://www.kocis.go.kr/ebook/ecatalog5.jsp?Dir=396>

Silver, Laura,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October 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Silver, Laura, Christine Huang, and Laura Clancy. 2022. “Negative Views of China Tied to Critical Views of Its Policies on Human Rights.” Pew Research Center. June 29.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6/29/negative-views-of-china-tied-to-critical-views-of-its-policies-on-human-rights/>

Global Times. 2020. “Chinese rational on China-US ties: GT poll.” December 26.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11038.shtml>

外交部. 2020. “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11월 30일.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011/t20201130_5419580.shtml (검색일: 2020. 12. 20.).

■ **저자: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중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공저)』,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현대편 3)(공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hspark@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3년 4월 12일

“한중의 상호 인식 변화와 한일관계의 함의” 979-11-6617-591-6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